

시마반도의

해녀

시마반도는 일본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해녀는 위대한 자연 바다를 일터로 삼아 바다의 환경을 소중히 하며,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3천년 이상 노력해 왔습니다.

해녀업은 3천년 이상 이어져 왔다 - 해녀의 오랜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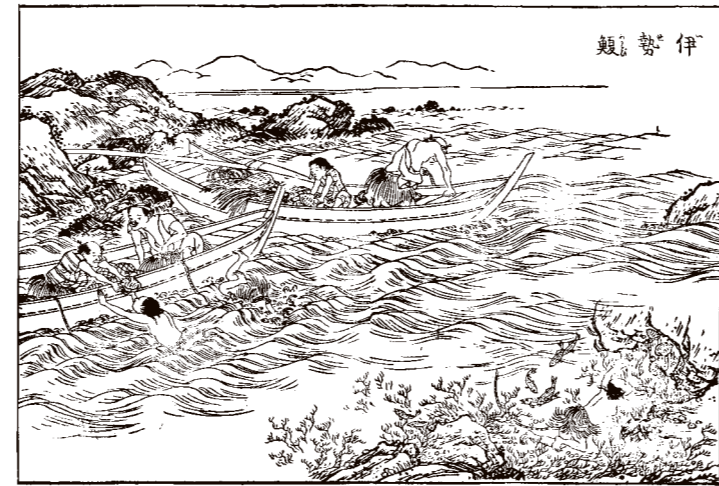
시마반도의 조몬·야요이시대(약3천년 전)의 유적에서, 전복이나 전복껍질을 바위에서 떼 내는 아와비오코시(빗창)라는 도구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바닷속에 잠수해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8세기에 잠녀(潛女)라는 글자가 문헌에 등장하고 부터이다. 시대가 18세기에 이르러, 우키요에(에도시대의 풍속화) 등에 해녀가 그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녀는 이세신궁에 전복 등의 해산물을 진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해녀는 3천년 넘게 독자적인 문화를 계승해 왔다.

북각으로 만든 빗창 (전복 채취도구) 도바시 우라무라의 시라하마유적에서 출토된 기원전 2백년 경의 빗창

목간 (물건을 보낼 때 붙이는 꼬리표로 종이 없애 나무가 쓰였음)

텐표17년(745년)의 헤이조쿄의 유구에서 출토된 목간. 전복이 시마국 나키리(波切)에서 나라(奈良)에 보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세해녀 노시오세이스노즈 에도시대에 그려진 우키요에. 해녀가 노시아와비(얇게 저며 말린 전복)를 만들고 있다



일본산해명산도회 (관정11년:1799년) 바다에서 일하는 해녀를 최초로 그린 그림. 당시에는 시마(志摩)도 이세(伊勢)로 여겨졌다.



미에현수산도해 (메이지16년:1883년) 수산 박람회 출품된 그림으로 모닥불을 둘러싸 앉아 몸을 데우고 있는 해녀들을 묘사.

다이쇼·쇼와초기 (1920년대)의 그림업서 다이쇼에서 쇼와(昭和) 시대에 들어서 해녀가 관광 면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풍어의 기원과 액막이 - 신앙심 깊은 해녀

해녀는 작업기의 시작이나 도중에 해신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제를 올립니다. 해녀의 가장 큰 바람은 풍어입니다만, 많은 혜택을 주는 바다는 자연인지라 늘 조용하고 온화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다에는 위험한 요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해녀는 신께 도움을 청하고 잠수작업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도만」수경도(修験道종교)의 구지를 축약한 표시와 「세만」1회으로 그리는 별모양은 시마반도의 해녀가 지니는 특별한 액막이 마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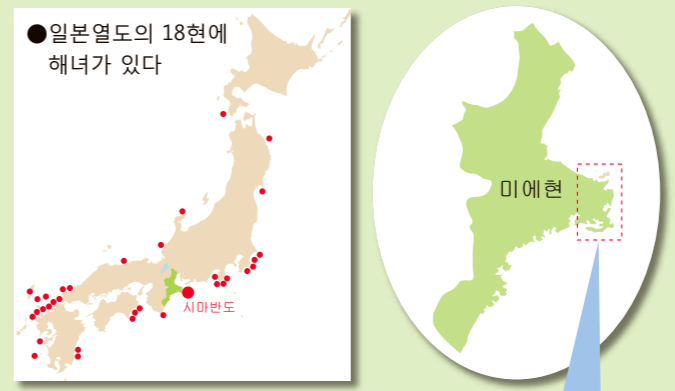
시마반도의

해녀



해녀의 숫자

현재 일본열도에는 18현에 약2000명의 해녀가 있는데, 그 중 미에현의 시마반도(도바시: 鳥羽市·시마시: 志摩市)에 761명(2014년 현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녀의 고령화로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어섰습니다.



해녀문화국제발신사업실행위원회 바다박물관·시마시역사민속자료관·도바시·시마시 헤이세이27년(2015년)도 문화청 지역의 핵심이 되는 미술관·역사박물관 지원사업

“해녀”란 나잠수업으로 전복,소라,해조 등을 채취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해녀는 위대한 자연 바다를 일터로 삼아 바다의 환경을 소중히 하며,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3천년 이상 노력해 왔습니다.

[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후나도(舟人)와 가치도(徒人) - 어업방식

해녀어업에는 '도마에'라 불리는 선장과 배를 타고 돌면서 작업을 하는 '후나도'와, 어장 까지 헤엄쳐 가 한 사람씩 작업을 하는 '가치도'가 있습니다. 가치도 중에는 다른 해녀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장으로 나가는 해녀도 있습니다. 그것을 노리아이(乘坐)라고 합니다. 노리아이는 보통 후나도와 가치도보다 더 깊은 곳까지 잠수합니다.



나잠수업 50초의 승부 - 해녀의 어업 방식

해녀는 잠수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전복,소라,성게,해삼,해조 등을 채취하는 사람입니다. 해녀에 따라 3m ~ 4m에서 20m정도까지 잠수합니다. 잠수 시간은 길어야 50초입니다.



물안경,빗창,잠수복 등 - 해녀의 도구

나체나 흰 물옷을 입던 시대는 가고, 해녀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1960년 경부터 잠수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고무 잠수복을 입으면 몸이 뜨기 때문 에 허리에 5kg~8kg의 추가 달린 벨트를 착용합니다.



메이지초기(1868) 이전의 해녀 메이지말기부터 쇼와초기의 해녀(1900~1930) 잠수복을 입은 현재의 해녀

해녀의 도구 중에 중요한 것은 물속이 잘 보이고 어획물을 찾는 데 필요한 '물안경'과 전복을 바위에서 떼어 내는 '빗창'입니다. 빗창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획물을 담는 이소오케는 최근에는 테왁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왁은 망사리를 달아 맨 부이로서 수면에서 한숨 돌릴 때도 쓰입니다. 해녀의 몸과 테왁을 잇는 '생명줄'도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머릿수건과 오리발이 있습니다.



바다의 풍요로운 자원 - 해녀의 어획물

까막전복,참전복,말전복, 오분자기 등의 4종류의 전복은 해녀의 어획물의 중심입니다. 소라,해삼,성게,천연굴,고동이라 불리는 조개류. 그리고 미역,툰,대황,우뭇가사리,청각채, 돌김류.



소라 미역



해삼 성게



툰을 채취하는 해녀들

부뚜막, 불턱 - 지금은 해녀 오두막

해녀의 적은 추위입니다. 요즘도 「부뚜막」이나 「불턱」이라고 불리는 해녀 오두막의 한가운데에 모닥불을 지핍니다. 잠수하기 전과 후에 몸속까지 따뜻하게 직접 불을 쬐니다. 해녀 오두막은 해녀에게 있어, 수면을 취하고, 동료들과 담소하고, 식사도 하는, 그런 소중한 장소입니다.

남획을 막기 위한 약속 - 여러가지 어획제한

10.6센티보다 작은 전복은 채취할 수 없다. 이 약속을 해녀들은 절대로 지킵니다. 소라,성게,해삼 등도 작은 것은 채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는 전복이나 소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채취하는 날짜,기간,장소 등을 정해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약속 내용은, 크기 제한, 계절의 제한, 작업 기간의 제한, 시간 제한, 금어 장소 등이 있습니다.



전복과 슨보(전복의 크기를 재는 자) 10.6cm